

휘어지고 빠르고 가볍게... 급속충전·배터리 신기술 ‘총출동’

리포 EV 트렌드 코리아·인터배터리

국내 전기차와 충전기술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의 핵심인 배터리까지 최신 제품과 서비스가 한 자리에 모였다.

전기차 산업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4’와 2차 전기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가 6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두 박람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초점을 맞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올해 12번째를 맞이하는 인터배터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18개국 579개 배터리 업체가 참가해 1896개의 부스를 꾸렸으며 올해로 7회차를 맞은 EV 트렌드 코리아는 86개사 445부스 규모로 참석했다.

◆EV 트렌드 코리아 ‘전기차 충전용품·솔루션’ 눈길
우선 코엑스 1층 A홀에서 개최된 EV 트렌드 코리아 전시장은 전기차 충전용품 및 솔루션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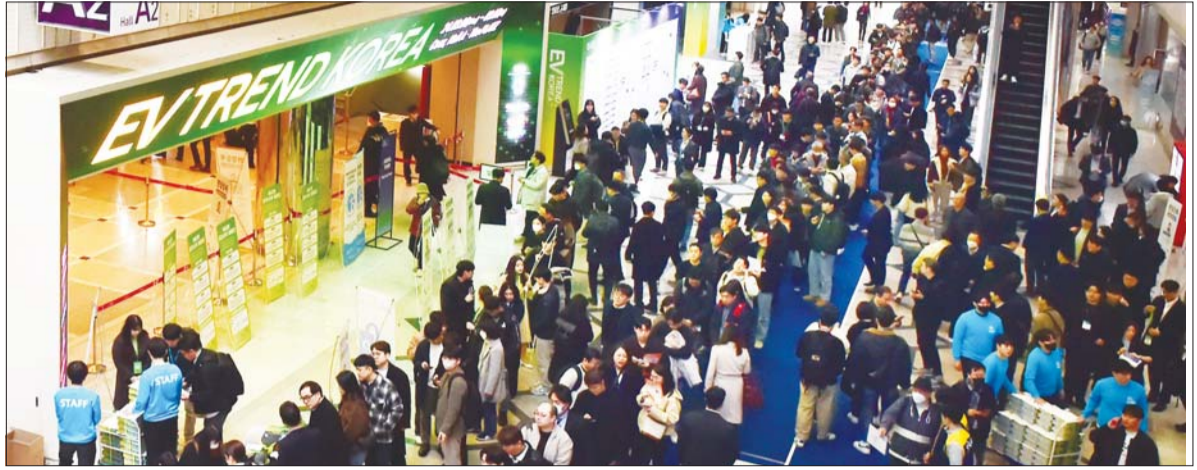
현대차는 전기차의 경제성과 배터리 성능을 설명하기 위한 전시장을 마련했다. 구매부터 중고차까지 이어지는 전기차 생애 주기에 맞춘 현대차만의 서비스를 로드맵으로 구현하고, 유지 비용 비교 체험으로 전기차의 경제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토록 했다. V2L(Vehicle to Load) 기능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전기차에 저장한 전력을 이용해 가전 제품을 사용할 경우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전시장에는 현대차가 최근 선보인 아이오닉 5 상품성 개선 모델과 다 올 뉴 일렉트릭 N라인이 방문객을 맞이했다.

EV 트렌드 코리아, 전기차 충전용품 눈길 전기차 생애 주기 맞춤형 서비스 로드맵 구현 충전·공간 등 지속가능성 3개 전시공간 마련

기아는 전기차 충전과 공간 및 신기술, 지속가능성을 각각 주제로 하는 3개의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레이 EV, EV9, EV9 GT-라인 등 최신 전기차를 통해 충전부터 친환경 소재 활용, OTA(무선 업데이트) 등 전기차 관련 최신기술을 관람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부스를 꾸렸다. 이날 방문객들은 현대차와 기아 전시장을 찾아 전기차의 디자인 등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또 이날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충전기, 충전 인프라 등을 볼 수 있었다. 그중 모던텍이 선보인 무인로봇충전시스템 ‘모던보이’는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전기차를 주차하면 로봇이 스스로 전기차 충전구에 충전기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날 시현



최신 전기차 트렌드를 볼 수 있는 ‘EV TREND KOREA 2024’가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람객들이 각 기업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24’ 기아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에서 로봇은 관제 시스템 제어에 따라 충전기로 이동해 충전 케이블을 집게발로 뺀 후 전기차의 충전구에 정확히 연결했다. 이후 반대로 맞물려있는 충전 케이블을 충전구에서 빼서 다시 충전기에 꽂는 작업도 이뤄졌다. 해당 과정은 각각 1분씩, 총 2분가량이 소요됐다. 모던텍은 앱을 이용해 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아이오닉 5와 EV6만 충전이 가능한 상태다. 신방화역과 모던텍 본사에 1기씩 설치 운영하고 있다.

LG전자 부스에서는 전기차 충전시 충전기가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해 운전자가 추가 입력을 하지 않고도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파킹’ 서비스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운전자가 충전기에 ID를 입력하거나 카드를 태그하지 않아도 충전이 가능하다. 또 충전기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EVD100DK’ 제품도 관람객의 발길을 잡았다. 이 제품은 설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 1대에서 2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마트 파킹은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며 “차량 번호판을 스캔해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 LG에너지솔루션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셀투팩(Cell To Pack) 컨셉의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 플랫폼을 관람하고 있다. /뉴스시

◆‘K-배터리’ 총출동... ‘인터배터리 2024’ 관심 폭발

이날 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곳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K배터리를 대표하는 업체들의 부스였다.

삼성SDI는 차량 내부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동차 모형을 전시했다. 또한 21700 원형배터리, P5각형배터리 등 삼성SDI의 주요 제품들도 소개됐다. 특히 제품을 소개하는 코너 뒤편에는 화려한 영상미를 담은 기업 소개 영상이 재생되고 있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부스 한 편에는 볼보 전기상용차도 전시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트럭용 배터리 팩을 소개하며 관련 기술을 설명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원형 배터리는 크기가 작아 고객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배터리팩의 모양을 디자인하는데 좀 더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인터배터리, 배터리 3사 미래전략 공유 배터리 탑재한 차량 미니어처 모형 전시 철강 복합소재 적용된 배터리팩 선보여

LG에너지솔루션은 블루투스 이어폰, 노트북 등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의 배터리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V R 고글에 사용되는 곡선형 파우치 배터리의 흰 모양은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SK온의 부스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2024 인터배터리 어워즈’에서 ‘급속충전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어드밴스드 SF(Super Fast) 배터리다. 해당 배터리는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밀도는 9% 높이면서 급속 충전 시간을 유지한 제품이다. 1회 충전 시 최대 501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기아 EV9에 탑재됐다.

특히 ‘2024 인터배터리’ 개막식을 앞두고 배터리 3사의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돋우었다. 각 사의 대표는 기자들과 회사의 미래 방향과 전략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SDI는 투자 규모를 늘리며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는 “울산 양극재 공장을 착공 시작했고 앞으로 다른 공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급속충전 관련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을 강조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더블레이어 코팅 기술을 활용해서 급속충전을 강화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K온은 LFP 배터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석희 SK온 대표는 “내부적으로는 LFP 배터리 개발이 완료됐고, 고객과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되면 2026년쯤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성운·차현정 기자 ysw@metroseoul.co.kr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몬테네그로 법원, ‘루나코인’ 권도형
美 인도 무효 /사진 뉴스시
▲중국, 국방비 지출 300조 돌파... ‘평
화’ 언급도 줄어

▲트럼프, 선거자금 고갈에 머스크 만남
요청
▲테슬라, 잇단 악재에 이들 사이 시가
총액 100조원 증발



▲트럼프 ‘슈퍼 화요일’ 압승에... 바이
든 “혼란 반복” /사진 뉴스시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불발 위기...
이스라엘 총리 회담 불참